

광주여상, 특허청 공모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변혁 시대에 새로운 방향 제시

올해부터 매년 7천600만원씩 3년간 2억2천800만원 지원

광주여상이 특허청 공모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 학교로 최종 선정돼 3년 동안 2억2,800만 원을 지원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은 특허청이 발명·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 및 지식재산 소양능력이 있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했다.

광주여상은 스마트재산경영과를 통한 '창의융합인재 및 직무발명인재 양성을 통한 맞춤형 진로 GO! GO!' 사업계획서로 서면평가,

현장실태조사, 학교장의 발표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단위 유형에 선정돼 올해부터 매년 7,600만 원씩 3년 동안 2억2,8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여상은 발명·지식재산 교과외 정규교육과정 도입과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이디어 고도화·지식재산권 출원, 기업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 발명교육,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발명동아리·발명대회 참여 등 다양한 발명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여상은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변혁 시대에 발 빠르게 대비해 수년 전부터 발명·

특허 동아리를 운영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재산경영과로 범위를 넓혀 지식재산권 출원, 기업연계 직무발명 취업연계,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등 광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명교육을 직접 체험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여상은 학생들을 공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선호하는 변화(방향성)와 직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로 키워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곳에 취업시켰다.

광주여상 발명·특허 동아리 출신으로 올해 한국전력공사에 취업한 김가윤 학생은 "발명을 통해 습득한 문제해결능력이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여상 발명·특허 동아리 박은주 지도

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바로 발명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왜(Why?)'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여상 김지선 학부모는 "창의력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이 국어·영어·수학이라는 세상이 정해진 공식 대신 스스로의 꿈을 정하고 자기 길을 개척해나가기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여상은 최근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청소년 비즈쿨사업, 광주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등을 발판으로 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성과를 내고 있다.

또 매년 50~60여 명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회사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취업률 65.24%의 뛰어난 실적으로 호남지역

최고의 '취업명문 특성화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9급 국가직 공무원 6명을 비롯해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수목관리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광주은행, KT&G, 신협 등 대학 졸업자들도 입사하기 힘든 공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학생들을 취업시켰다.

광주여상 김천수 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 학부모들의 뒷바라지가 어우러져 취업명문 특성화고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여상만의 맞춤형 취업·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장성 사창초등학교, 블렌디드 졸업식

온라인 입학식에서 온라인 졸업식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던 2020학년도 마지막 일정인 98회 졸업식이 사창초등학교(교장 김마리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블렌디드 졸업식은 영상의 프로그램은 이용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부모님들은 대기실과 가정에서 대표 학생들의 장학금과 상장 수상을 축하했고, 교육공동체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시청했다.

이후 학급별로 진행된 격려금과 상장은 담

임이 직접 수여하였고, 강당밖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차양에서 기다린 가족 및 친구들과 순서를 정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특히 올해 졸업식은 개교 100주년과 관련해 총동문회장 송영중(45회)씨가 보여준 관심과 격려금, 그리고 학부모회 주도로 이루어진 알뜰시장 수익금과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졸업하는 학생 모두에게 졸업 축하 격려금이 졸업장과 함께 할 수 있었다.

2020학년도는 온라인 입학으로 시작돼 온



라인 졸업으로 마무리되었다. 김마리아 교장은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최선을 발전한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가 계속될 2021학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사창교육 공동체를 기대해 달라고 말을 마쳤다.

기동취재본부

구례 마산면교육공동체, 초등학교 토론회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찬성한 나이스용방팀 1등 차지

면단위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현안인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한 초등학교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례군 마산면(면장 황철배)은 지난 1월 8일 제1회 구례군 초등학교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총 20개팀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2일 정전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예선전에서 '정전초등학교 신데이루' 팀인 박성휘, 전지환, 한민수 학생, '중앙초등학교 문채야산다' 팀 이은성, 양채원, 박진한 학생, '북초등학교 Simple' 팀 박호연, 장혜진, 조익승 학생, '용방초등학교 나이스용방' 팀 김건후, 박용훈, 오가은 학생 등 총 4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5

위를 한 '정전초등학교 이기자' 팀인 조용빈, 하지훈, 한준희 학생은 특별상 대상자가 되었다.

본선은 8일 오후 3시 마산면에 있는 정마관에서 개최했다. 토론 주제는 구례군 상동용방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으로 진행됐다. 치열한 토론 끝에 ▲1등 토론왕은 찬성 팀인 '용방초등학교 나이스용방' 팀 ▲2위는 '중앙초등학교 문채야산다' 팀 ▲3위는 '정전초등학교 신데이루' 팀 ▲4위는 '북초등학교 Simple' 팀 차지했다. 우수토론학생은 심사위원 투표결과 총 3표씩을 받은 용방초등학교 오가은, 김건후, 중앙초등학교 양채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중마도서관 겨울방학 '청소년 인문아카데미' 운영

4주동안 고등·대학생 대상 발표와 면접 방법 전달

광양중마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13일부터 4주 동안 '2021 청소년 인문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인문아카데미에는 전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이자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말하기와 토론, 면접 특강 등 1,000여 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 박재은 아나운서가 강사로 나선다.

강연은 모두 두 개의 주제로 4회 운영된다. 먼저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 과정은 1월 13일과 20일, '신뢰를 주는 말하기 클래스'를 주제

로 목소리 트레이닝과 말하기 스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전달해 학생들의 발표와 면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정은 오는 27일과 2월 3일, '퍼스널컬러로 접근하는 면접 클래스'를 주제로 증명사진 잘 찍는 방법, 자신의 면접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 등 취업·면접에 있어 핵심 전략을 전해준다.

강연은 고등학생·대학생 과정 모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고등학생 과정은 ZOOM 플랫폼으로, 대학생 과정은 중마도서관

인문학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단, 대면 강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청소년 인문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은 광양중마도서관(☎061-797-388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진로와 취업, 면접에 고민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인문아카데미를 준비했다"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